

# “양궁·펜싱 배우자” 광주·전남 ‘스포츠 붐’

### 광주 5개 자치구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급증 ‘올림픽 효과’ 강사·참여 선수 일정에 수업 편성 어렵고 예산 없어 발만 ‘동동’

2024 파리올림픽에서 광주·전남 선수들을 비롯한 스포츠 스타들이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광주·전남에서도 스포츠 붐이 일고 있다.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한 양궁 종목은 비롯해 각종 올림픽 종목을 배우려는 지역민이 급증하면서 광주시 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활기를 띠고 있다.

광주시 남구의 공공스포츠클럽 ‘행복남구양궁스포츠클럽’은 올림픽 이후 양궁의 폭발적인 인기로 이용자가 30%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클럽은 공공스포츠클럽으로서 국비·지방비 1억원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반, 현장방문체험 등을 운영 중이다. 광주국제양궁장과 효천공원에서 1회 체험비 2만원, 주 1회 기준 6만원씩 회비를 내고 월 4회씩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클럽 관계자는 7월까지 62명이었던 수업 참가인원이 8월 12일 기준 80여명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업 참가인원은 1-7월 평균 52명이었으나, 8월 들어 참가자 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양궁 국가대표팀이 올림픽에서 선전하자 남구 클럽에도 기존 하루 3-4건에 그쳤던 문의 전화가 올림픽 이후 6-7건씩 걸려오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운율미 클럽 지도자는 “우리 선수들의 활약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궁에 관심을 갖게 돼 기쁘다”며 “양궁은 정적인 운동이지만 바쁘고 집중하기 힘든 시대에 꼭 필요한 운동이다”고 말했다.

펜싱팀을 운영 중인 광주시 서구의 ‘펜싱 교실’도 주목받고 있다.

서구는 ‘서구 펜싱팀’에 소속된 선수들을 강사로 삼아 염주체육관 펜싱훈련장에서 펜싱교실을 운영 중이며, 이번 올림픽 국가대표에 서구 소속 강영미·김재원 선수가 포함되기도 했다.

서구 펜싱교실은 어린이반 2기수, 가족반 2기수, 성인반 1기수 등(기수당 15-30명)을 선착순 모집해 1년 동안 총 12회 수업을 하는데, 지난 4-7월 이뤄진 수업 중 특히 올림픽을 목전에 둔 7월에 참가자가 초과 접수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올림픽 이후 모처럼 비인기 종목 수업이 ‘인기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지자체의 각종 생활체육교실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다고 아쉬워한다. 비인기 종목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호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광주시 서구 펜싱 교실은 올림픽 기간인 8월을 비롯해 오는 10월까지 수업 일정이 없으며, 오는 11월 중 가족반 1회차 수업만 남겨두고 있다.

특별 수업을 편성하거나 수업 시수를 확장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수들이 개인 시간을 쪼

개서 강사로 나서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선수들의 대회 일정을 피해서 수업 시간을 짜느라 올림픽에 따른 지역민들의 인기를 그대로 반영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복싱 팀’을 운영 중인 광주시 동구는 올해 화순 출신 임애지가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최초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을 위한 별도의 복싱 교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복싱동호인 50여명을 대상으로 1회성 복싱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복싱 교실 운영 계획이 없다.

동구는 당초 올해 하반기 중 아마추어 복싱 교실을 열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12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소속 프로 선수단이 없는 상황에 복싱 훈련장이 없어 서구 염주체육관을 빌려 쓰고 있는 터라 복싱 교실을 열 장소를 구하기 어렵고, 예산도 넉넉지 않아서다.

동구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맞춰 복싱 교실을 열

었다면 호응이 좋을텐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여자태권도선수단’을 운영 중인 광산구 또한 올해 12월까지 매주 2회로 예정된 ‘오라차차 건강태권도’ 교실 외 다른 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광산구는 운남동, 송정동, 첨단지구 등 3곳의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서 매주 2회씩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실버태권도 교실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참가 대상이 노인으로 제한돼 있고 올림픽 관련 인기를 반영한 추가 수업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프로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태권도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예산이 없어서 사업 확장은 힘들다”며 “지도자 연봉 문제도 있고 선수들은 기업에서 스카우트해버리는 터라 선수단 운영만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어머니의 나라 배웁니다**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접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중언어 디딤캠프’가 12일 나주 동신대학교에서 열렸다. 중국과 베트남 어머니를 둔 나주와 완도지역의 다문화 배경 초등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공작물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학원가,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성행

### 교육단체, 선행학습 광고 42건 확인

‘의대준비! 초등! 승부가 진행된다’, ‘초5의대반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증원하기로 한데 따라 광주지역 학원가에서 초등 의대반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지역 교육단체인 학원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행학습 광고 42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A학원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해 수학, 과학, 국어, 논술 등 중·고등학교 수준의 선행학습을 진행하고 있고 B학원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의대선행반에서 중학교 수학 교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조사결과다.

시민모임은 C학원은 의학도서를 활용한 독서 활동 등을 통해 초등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일부학원에서는 ‘24년 연속 광주 1위, 수백 명의 의대생을 만들어낸-’, ‘중3 내신

무조건 100점’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것도 확인됐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시민모임은 “현행법상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할 수 없지만 과태료 처분 등 강제성이 없는 데다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하다”면서 “특히 방학을 맞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며 분선동 등 특정지역뿐 아니라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사교육의 폐단이 커지는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육부 지시가 내려올 때만 단속을 하는 등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광주시 교육청에 자체적발한 42건의 선행학습 광고를 신고하고 광고물 삭제·철폐 등 조치를 요구했다.

박고형준 시민모임 활동가는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모니터링을 진행해 선행학습 광고 3건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라며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단속 계획 및 인력을 구축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 보석 신청 기각을”

### 금속노련, 국회서 사태해결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이 국회에서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을 기각하고 국회 청문회 당시 위증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박 회장 일가가 사태를 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노련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문제의 근원인 박 회장의 보석 요구를 기각하고 위증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대유위니아그룹 가진 3사의 임금체불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노동자 2000명, 체불액 1000억원이며 점차 늘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임금체불액은 1조 436억원에 달한다”며 “박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 해소에 노력하겠다고며 체불임금 변제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채 법적 구속 상황에서 보석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구속 만료 시기는 9월 6일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대유위니아 그룹은 광주 지역 대표 기업이다. 광주 가전사업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협력업체만 133개에 달해 최소 수천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임금체불액과 별도로 지난 달까지 전기요금 5억 4000만원을 미납해 전력이 차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박 회장의 보석 신청 기각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 공군 1전비, 9월 7일 광주서 ‘에어쇼’ 개최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은 다음달 7일 광주 공군기지에서 ‘제45회 스페이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스페이스 챌린지는 올해부터는 일반 관람객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에어쇼’로 진행된다.

당일 행사장 입장은 오전 8시 30분부터 가능하다. 행사 개최식은 오전 10시 10분부터지만 앞서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의 공연이 진행된다.

개회식 이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특수비행이 오전(10시 20분-11시30분), 오후(2시 5분-2시50분) 각 한시간 가량 두 차례 펼쳐진다.

수송기 탑승(75상 추첨, 150명), 고무동력기 날리기 체험(선착순 200명)은 스페이스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